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IMF-일본 고위 세금 세미나
“아시아 국가들에서 부상하는 세금 문제”

시노하라 IMF 부총재의 폐회사

일본 도쿄

2012년 2월 3일

우리는 매우 바빴던 4일 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광범위하고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었고, 여러분의 토의가 활기차고 건설적으로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세금 문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재정정책이 전세계에서 경제정책 토론의 중심에 있습니다. IMF의 *세계경제전망과 재정점검 보고서*(모두 지난 주에 발표)에 대한 업데이트에서 지적했듯이,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중기적인 재정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글로벌 정책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정점검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하방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정책을 신중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국가들, 특히 일부 선진 경제국들의 재정적자와 부채는 점차로 축소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 경제국들은 경제환경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재정정책을 상당히 조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선진 경제국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금년에 성장이 지체되더라도 재정적자 축소 목표를 고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더 이상 재정을 긴축해서는 안되고 자동 안전장치를 가동해야 합니다.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단기적인 조정의 속도를 재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신뢰성 있는 중기 재정적자 축소 계획과 성장을 축소할 수 있는 개혁에 의해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배경을 고려하여 과세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저는 그 중 3 가지 사항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입 기반 확충입니다.

이것은 금융위기에 대처하느라고 재정적 여력을 소진했고 완충장치를 재건해야 하는 국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수요가 많은 기반시설과 사회복지 지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많은 신흥국과 저소득국가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컨퍼런스에서 정책과 행정개혁(탈세 방지 포함)을 통해서 조세수입의 기반을 확충하는 다른 국가들의 경험과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모든 국가가 서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둘째는 불균형입니다.

불균형은 조세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특히 재정 건전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빈곤층을 보호하고, 압력단체와 특별이익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세금제도를 변경하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토의로부터 도출된 하나의 결론은 조세정책과 함께 세출정책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진 경제국에서 발생하는 재분배의 약 3분의 2는 과세가 아닌 정부 지출을 통해서 실시됩니다. 따라서 가장 비용 효율이 높은 방법으로 빈곤하고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정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균형에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들 사이의 불균형과 한 국가 내의 다른 지역들 사이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 및 지출 정책의 결과로 발생하는 대규모의 세대간 불균형의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60세 이상 된 노인들은 세금-복지제도의 평생 순수혜자입니다. 그들의 순복지혜택은 약 4,000만 엔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미래의 세대들은 거의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봅니다. 이러한 불균형들은 재정 지속가능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기후변화 재정입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 경제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작년엔 G20 이 이러한 자금의 공공 부분을 마련하기 위한 아이디어에 대해 IMF 에 질문했을 때, 저희는 활용 가능한 2 가지 재원을 제시했습니다.
-
- 첫 번째 재원은 탄소세 또는 할당량을 경매하는 배출권 거래의 형태로 탄소가격을 광범위하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시장신호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탄소가격을 적절하게 책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탄소가격을 적절하게 책정하면 기후변화에 대처하거나 다른 중요한 사회복지 지출을 위해 필요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들이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는 데 어려움(예를 들면,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민감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IMF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
- 기후변화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두 번째 재원은 국제 항공 및 해운 업계에서 연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탄소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금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이 업계는 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교토 프로토콜의 범위를 벗어나 있고,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금은 매우 광범위한 국가들에 대해 부과해야 회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무역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IMF 보고서에 설명된 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기후변화 재원 확충 옵션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맺음말

저는 폐회를 마치기 전에 이 세미나의 공동주최자인 일본 대장성에 이 컨퍼런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이 연례 컨퍼런스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IMF 참여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고, 일본 당국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이벤트를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이 컨퍼런스의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IMF 재정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무소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호주, 홍콩, 싱가포르의 대표들, 그리고 이 컨퍼런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들의 경험을 다른 참석자들과 공유해 주신 다른 국제 및 지역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 드립니다. 물론, 지난 4일 동안 진지하게 토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라며, 이 지역에서 오신 동료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